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신문협회 제50대 회장에 박장희 중앙일보 발행인

부회장은 장승준·이성철·김여송·손영신 발행인
협회 새 임원진 구성...임기 2028년 정기총회까지

신문협회는 지난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4차 정기총회(사진)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장희 중앙일보 발행인을 제5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부회장에는 매일경제 장승준 발행인, 한국일보 이성철 발행인, 광주일보 김여송 발행인, 부산일보 손영신 발행인이 선임됐다.

신문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사 21명, 감사 2명 등 총 23명의 새 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6년 사업 및 예산을 확정했다. 협회의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생성형AI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 △뉴스 가치·신문 신뢰 제고 △신문 규제 법안 대응 △조사·연구 △신문홍보 △디지털 전략 및 콘텐츠 혁신 등이다.



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인들이 3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협회 제64차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협회 제50대 회장·부회장

박장희
회장

학력 > 서울대 정치학 학사·석사 졸업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력 > 중앙일보 경제부·국제부 기획취재팀 기자·전략팀장·기획팀장·경영지원실장·경영기획실장·경영총괄·대표이사 전무·대표이사 부사장·대표이사 사장·발행인·편집인 > 중앙일보 S대표이사 발행인 > 중앙대 일리대표이사 발행인 > 중앙M&P 대표이사 사장 >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사장 > 타운보드중앙 대표이사 사장 > 한국신문협회 이사·부회장

장승준
부회장

학력 >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
경력 > 매일경제 경영기획실 연구원·기획담당 이사·상무 이사·기획담당 전무 이사·부사장·대표이사 사장·발행인 > MBN 매일방송 기획담당 이사·부사장·대표이사 사장 > 매경미디어 부회장 >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이성철
부회장

학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졸업
경력 > 한국일보 경제부장·산업부장·디지털부문장·뉴스부문장·편집국장·콘텐츠본부장·대표이사 사장·발행인·편집인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신문윤리위원회 이사 > 한국신문협회 이사

김여송
부회장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 > 광주일보 사회부·정치부 기자·정치부 차장·정치부장·편집국 부국장(정치담당)·대표이사 사장·대표이사 회장 > (주)광림 대표이사 사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손영신
부회장

학력 > 고려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 부산일보 정치부 차장·사회부장·경제부장·편집국장·전략기획 이사·대표이사 사장 > 한국신문협회 이사

이사 감사	이사	곽영길 아주경제 발행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재철 대전일보 발행인	김원식 중도일보 발행인
	김경호 국민일보 발행인	황대일 연합뉴스 발행인	박진오 강원일보 발행인	이동관 매일신문 발행인	감사
	임채정 동아일보 발행인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한국선 경북일보 발행인	손인락 영남일보 발행인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발행인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발행인	홍정표 경인일보 발행인	서창훈 전북일보 발행인	이후혁 대구일보 발행인

한국신문협회(회장 박장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 등 언론3단체는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에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이수빈·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월 25일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가짜를 거르는 눈, 진실을 담는 창' (김민준·인천)과 '신뢰를 쓰다, 내일을 밝히다' (태지훈·전북 완주군) 등 2편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표어 대상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에 대해 "알고리즘으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신문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우수상으로 뽑힌 '가짜를 거르

는 눈, 진실을 담는 창'은 "독자를 대신해 허위 정보를 판별해 내는 '눈'으로서 신문의 역할을 간결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뢰를 쓰다, 내일을 밝히다'는 "신문의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보도를 디딤돌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함 있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 대상에는 '프레스와 포커스' (김혜정·경남 양산시)가,

<신문의 날 표어>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신문홍보 캐릭터 대상엔 '프레스와 포커스'



우수상에는 '펼침이' (최우영·서울 강북구)와 '참소리' (정우준·서울 은평구) 등 2편이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캐릭터 대상 '프

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친근하게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펼침이'는 "정보가 펼쳐지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캐릭터의 형태와 움직임 속에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소리'는 "신문을 의인화한 캐릭터에 망토와 역동적인 동작을 더해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친근한 히어로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수상소감 3면> 표어 및 캐릭터 대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 원과 상패, 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50만 원과 상패를 각각 받는다. 시상식은 4월 7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때 열린다.

AI 시대에도 나는 왜 신문을 읽는가?

제70회 신문의날 기념 기고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초등학교 3~4학년 시절, 산간벽지였지만 마을 이장이셨던 아버지 덕에 집에 신문이 배달되었다. 신문을 뒤적이다 당시 좋아하던 권투 선수의 경기 결과를 발견했다. KO였다. 환호하며 옆집으로 뛰어가 큰 소리로 승리 소식을 전했다. 이웃 아저씨가 신문을 보시더니 말했다.

“야, 이걸 졌다는 뜻의 한자 패(敗)야. KO패 당한 거라고.” 이 일은 내가 신문과 관련해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이다. 확신했던 승리가 순식간에 패배로 뒤바뀌며 느낀 절망감, 성급함과 무지에 대한 수치심, “사람은 배워야 해”라는 각성까지. 그때의 감정들이 이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든 듯하다. 그 사건 때문이었을까. 나는 매일 배달되는 신문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일간지의 ‘한국의 전문경영인’ 기획 시리즈를 탐독했다. 그중 그룹 회장과 과의 면접에서 전문경영인이 되겠

다고 호언하던 한 경영인의 일화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더 열심히 읽었을 기업 영웅 만화들은 제목조차 가물가물한데, 그 기획기사들은 여전히 내 기억 한 권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신문의 칼럼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흘린 듯 문장을 따라 읽으며, 다음 칼럼을 기다렸다. 시사 칼럼은 날카로웠고 문학 칼럼은 깊이가 있었다. 필자들을 사랑했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했다. 이제 그 칼럼의 내용은 희미해졌지만, 당시 나를 키운 것의 적어도 일부는 그 칼럼들이었을 것이다.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대학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매우 인기가 높았다. 나는 학생 기고를 즐겨 읽었는데, “하버드 대학 화장실 휴지는 두 겹인데 왜 우리 학교는 한 겹인가?”라는 글이 아직도 기억난다. 또한 미국 신문의 추도 기사를 읽으며 여러 번 지적인 충격을 받았다. 시카고 베어스의 전설적인 러닝백 윌터 페이튼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한 스포츠 기사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의 업적과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 기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그런 추도사를 자

주 접하지 못한 것은 늘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신문에는 인간기자의 고유한 경험·감정 살아있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 지금까지도 신문은 매일 나에게 일용할 지식을 준다. 아침에 스키트 읽은 기사 하나가 그날 오후의 대화를 풍성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점심에 읽은 칼럼이 저녁 모임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한 적도 적지 않았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지만, 신문을 읽고 난 날은 늘 마음이 당당하고 여유로웠다. 종이든 PDF든, 홈페이지든, 그날의 신문을 펼치면 마치 한상처럼 다양한 기사와 칼럼이 눈앞에 펼쳐진다. 수많은 기사들이 서로 다른 지식을 제공하지만, 갈수록 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기자가 체험한 지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사다. 최근 심사를 위해 여러 신문을 살펴보다가 “MZ세대 기자들 ‘이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짧은 기자들이 작은 농촌 마을에 들어가 3개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록한 이야

기였다. 이들은 청년 이장을 자처하며 마을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려 애썼고, 그 과정을 기사로 전했다. 물론 눈에 띄는 해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태도, 문제 해결을 향한 진정성이 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기사에는 기자가 체험한 지각과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그 덕분에 배우는 바와 읽는 즐거움이 컸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는 기사와 칼럼들 역시, 그들만의 고유한(authentic) 경험과 감정이 살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AI에 의존한 기사 넘쳐날수록 저널리즘 가치 중요

기사도 결국 소통이다. 소통은 한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 생각은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고, 원래의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신자의 마음속에 재현된다. 기사 역시 기자의 고유한 경험에서 출발하며, 그가 느낀 감정과 생각이 독자에게 어느 정도 재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소통과 기사 모두 그 시작과 끝은 인간의 경험이다. 메시지를 더 효과적

으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 인간은 수많은 매체와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우리의 소통은 더욱 풍성해졌다. 그리고 이제 AI는 그 기술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젖히고 있다. 그러나 AI를 포함한 어떤 기술도 인간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기자가 직접 겪는 경험과 감정은 더욱 그렇다. AI 시대에도 훌륭한 기사는 결국 기자의 경험이 얼마나 고유한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신문을 읽는 이유는 기사를 통해 기자가 체험한 지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이유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다. AI에 의존한 평범한 기사들이 넘쳐날수록, 기자의 인간적 경험과 독자에 대한 책임감, 즉 저널리즘 정신이 깃든 기사는 더욱 소중해진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기사들을 신문에서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나게 되리라 믿는다. 어느 날처럼 오늘 아침도 좋은 기사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새벽에 배달된 신문을 펼친다.

디지털협, ‘언론-생성형 AI’ 뉴스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



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지난 3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사진)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또 △포털 대응 전략 △생성형 AI 대응 협의체 운영 △뉴스 저작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 등 주요 사업도 확정했다.

디지털협은 정기총회에 이어 오후 3시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사·AI기업 간 공정한 뉴스 이용의 원칙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을 발표하고, 해외 분쟁 사례와 정책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언론사의 현실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

다. 신한수 회장은 “뉴스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뉴스의 가치가 보장돼야 AI 산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주제발표에서 언론사와 AI기업 간 뉴스데이터 이용 계약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뉴스 데이터 이용 목적·범위 △저작권 보호 방안 △보상 방식 및 비용 산정 기준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뉴스 이용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권이 언론사에 귀속된다는 점과 출처 표기·침해 대응·법적 책임 규정 등 언론사 권리 보호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 보안, 공정한 보상, 이용 모니터링과 윤리 기준을 통해 투명성과 책



지난 3월 19일 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가 주최한 ‘뉴스데이터 제공 계약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신한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성을 확보하는 계약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AI 대응, ‘저작권 침해 소송’vs ‘제휴·협력’ 투트랙

이어 지정토론에서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변리사는 “글로벌 뉴스 저작권 분쟁이 초기에

는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에는 라이선스 계약과 콘텐츠 제휴로 방향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저작권 문제를 넘어 시장 대체 효과, 광고·구독 수익 감소, 독점 문제 등으로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규모가 구체화되고 AI 분쟁 관련 법리가 정립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빈 연합뉴스 AI콘텐츠부장은 “AI가 뉴스를 요약 제공하면서 언론사 트래픽이 감소하는 현상이 이미 해외에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처럼 기술 표준 수립,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산업계 공동 대응을 통해 언론사가 생성형AI의 콘텐츠를 직접 통제하고 수익화하는 상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현재 국내는 AI 학습과 관련된 명확한 저작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기업이 상생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심사평·수상소감

“급변하는 세상 속 신문은 중심추이자 나침반”

올해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275건이 접수돼 독자들의 여전한 신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어느 해보다도 빼어난 수많은 응모작을 살펴보면, 독자들이 신문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고심의 흔적이 여실한 표어들은 넘쳐나는 정보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문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추이자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돼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세상의 심층을 파고들며, 미래를 향한 통찰을 주는 신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올해 심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가운데, 더욱 소중해지는 신문의 가치를 표현한 작품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표어로서 입에 감기는 맛이 있는 작품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대상으로 선정한 건 많은 우수작 가운데서도 이런 기준에 잘 부합한다고 의견이 모인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이다. 생성형 AI는 그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AI 환각’이 심각



지난 3월 12일 열린 표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검토하고 있다.

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아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인지적 편향을 강화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 표어는 알고리즘으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신문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무리 정보 기술이 발전하고 매체 환경이 변해도 기자들이 발품을 들여 취재한 팩트의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우수상으로는 “가짜를 거르는 눈, 진실을 담은 창”과 “신뢰를 쓰다, 내일을 밝히다”를 선정했다. 두 표어 모두 허위 조작 정보와 함께 ‘보고 싶은 바만 보고 듣고 싶은 것

만 듣는’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문의 높은 신뢰성을 강조했다. “가짜를 거르는 눈...”은 독자를 대신해 허위 정보를 판별해 내는 ‘눈’으로서 신문의 역할을 간결하게 담았다. “신뢰를 쓰다...” 역시 신문의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보도를 디딤돌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힘 있게 강조했다. 데 이의가 없었다.

표어 심사위원
조종엽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이용성 경기일보 편집이사
이두걸 서울신문 사회1부장



표어 대상 수상 소감
이수빈
35세-경남 김해시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든 표어는 ‘인공지능(AI)보다 신문이 더 좋다’는 의미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선별한 단편적인 정보에 갇히지 말고, 신문으로 세상을 폭넓게 읽고 느끼자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플랫폼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인간의 삶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넓

치는 정보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어렵게 됐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화면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을 읽으면 수동적

인 정보 소비를 넘어 진짜 세상을 접하고 나만의 통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기자의 시선이 담긴 글과 사진 등 뛰어난 콘텐츠가 집합된 ‘종합 예술’입니다. AI가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문이며 저 또한 늘 든든한 신문을 곁에 둘 것입니다.

제70회 신문의 날 캐릭터 심사평·수상소감

“정보 전달·소통이라는 신문 역할 창의적으로 구현”

올해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에는 다양한 형태와 이름을 가진 총 95건의 후보작이 출품됐다.

심사는 정보 전달과 소통이라는 신문의 본질적 역할과 가치를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캐릭터로 구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캐릭터와 유사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작품, AI 제작이 의심되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26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 대상은 ‘프레스와 포커스’가 차지했

다. 이 작품은 신문과 카메라를 모티브로 한 두 캐릭터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친근하게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인 캐릭터 ‘프레스(Press)’는 신문을 형상화해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의 상징성을 담았고, 보조 캐릭터 ‘포커스(Focus)’는 카메라 렌즈를 모티브로 순간을 포착하는 역할을 표현했다. 두 캐릭터는 정보 전달이라는 신문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다양한 형태 변형도 안정적으로 구현돼 활용성과 완성도 측면에



지난 3월 10일 열린 캐릭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출품작을 살펴보고 있다.

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펼침이’와 ‘참소리’가 각각 선정됐다. ‘펼침이’는 신문을 펼치는 행위에서 착안한 캐릭터로, 여러 장의 지면이 겹쳐진 형태

를 단순한 사각 구조로 표현해 신문 매체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담아냈다. 정보가 펼쳐지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캐릭터의 형태와 움직임 속에 담아낸 점이 인상

적이라는 평가다. ‘참소리’는 신문을 의인화한 캐릭터에 망토와 역동적인 동작을 더해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친근한 히어로 이미지를 표현했다. 밝은 표정과 다양한 포즈를 통해 대중적인 친근감을 높였으며, 홍보 캐릭터로서의 활용 가능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캐릭터 심사위원
김수진 동아일보 뉴스디자인팀장
박이관 연합뉴스 디자인팀장
권기현 세계일보 미술팀 기자



캐릭터 대상 수상 소감
김혜정
43세-경남 양산시

제70회 신문의 날 신문 홍보 캐릭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아 사회를 비추는 ‘신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이번 캐릭터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메인 캐릭터 ‘프레스’는 진실을



‘프레스와 포커스’



기록하는 신문 기자를 상징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브 캐릭터 ‘포커스’는 카메라를 모티브로 한 촬영 기자 캐릭터로, 현장의 순간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신문의 현장성과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두 캐릭터를 통해 신문이 지닌 상징성과 기사 제작 과정의 가치를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신문이 단순한 매체를 넘어 사회의 사실을 기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메시지와 가치를 담은 창작을 이어가겠습니다.

2026 한국신문상 심사평·수상소감

사회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법 제시

올해 뉴스취재보도는 재경사 부문에 6편 지역사 부문에 6편이 출품되었습니다.

뉴스취재보도 재경사 부문에서는 조선일보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병 북한군 포로 2명 세계 첫 인터뷰>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적인 관심사인 북한군과 병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세계 언론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는 점 그리고 많은 세계 언론이 이 보도를 인용한 점에

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전쟁 지역을 장기간 오가며 위험을 감수한 끈질긴 현장 취재를 통해 국제적으로 과장이 큰 사안을 독자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이 특히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뉴스취재보도 지역사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단순 납치 사건

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을 집요한 자료 분석과 후속 취재를 통해 드러내며, 피해자가 남긴 방대한 기록과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고 제도 개

선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2차 피해를 고려한 신중한 보도 태도와 지속적인 추적 보도를 통해 공적 책임을 환기한 점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기획·탐사보도에는 재경사 부문 16건 그리고 지역사 부문 17건 등

많은 보도가 지원했습니다. 기획·탐사보도 재경사 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사라진 청년들 : 캄보디아 범죄조직을 해부하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6면에서 계속

한국신문상 심사위원

변재운 전 국민일보 발행인, 이태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하원 관훈클럽 총무, 조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한국언론학회 회장



뉴스취재보도 부문
조선일보 편집국
정철한 기자

“전쟁의 진실 정직하게 바라보는 계기되길”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군 병사 두 명을 마주하며 느낀 첫 감정은 참담함이었다. 이 전쟁이 대륙 반대편 한반도 청년들의 무고한 삶을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지 내 눈과 귀로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차가운 포로수용소의 감방에서 1년 넘는 세월을 견디고 있다. 이 상의 무게와 함께, 여전히 속박당한 삶을 사는 두 북녘 청년의 현실이 마음 한 켠을 짓누른다.

이 보도는 북한군 파병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자, 정치 권력에 의해 전쟁 도구로 전락한 우리 동포들의 존재와 그 참상을 기록하는 일이기도 했다. 전쟁은 숫자와 전환, 외교와 전략의 언어로 먼저 설명되지만, 끝내 우리를 붙드는 이야기는

그 안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번 취재가 전쟁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상을 주신 한국신문협회와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코

나 혼자 힘으로 해낸 일이 아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취재에 특과원의 값비싼 시간을 마음껏 쓰도록 배려해 준 신문 경영자의 신념, 또 생명을 걸고 전쟁 지역을 누벼온 해외 동료 기자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은 기자 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진 큰 빛을 갚을 수 있었으면 한다.



뉴스취재보도 부문
경인일보 편집국
조수현<사진>, 정선아 기자

“피해자들 외침 외면받지 않도록 계속 묻고 쓸 것”

잔혹한 범죄 뒤에 피해자가 남긴 흔적은 없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범행묘사에 치우친 경찰의 브리핑이 못내 짹짹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사건을 취재하며 접한 살인사건 중 많은 수는 남성 파트너에게 여성이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빼닮은 듯 징후를 남겼습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술한 폭행 피해로 심신이 무너져 내렸을 상황에서도 녹음·녹취록 등 피해 증거자료 수백 장 분량을 조각조각 수집했습니다.

가해 남성이 언제든 찾아와 보복할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외면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에도 가해자를 방치해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누리기 어려운 수

상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 불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닳은 모습으로 반복돼서입니다. 죽음을 다루는 취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고 둘러댔는데, 말뿐인 허망한 다짐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수사나 법이니 국가니 쉽

게 떠들면서 상을 받을 만큼 떳떳한가 묻는 물음 앞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딸을 떠올릴 때면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 냈던 그 마음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남은 자들이 해야 할 몫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침이 외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묻고 쓰겠습니다.



기획·탐사보도 부문
한국경제 편집국
김다빈<사진>, 류병화 기자

“감춰진 진실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는 것이 기자 역할”

한번 던진 의제를 끝까지 놓지 않는 일. ‘어젠다 키퍼’은 캄보디아 사태를 취재하는 내내 가장 많이 되새긴 다짐이었습니다.

취재는 우연히 본 실종 전단지 한 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한 청년의 행방을 쫓

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감금돼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는 실체를 처음 접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도와달라”는 이메일이 끊이지 않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저는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와 조직 관계자, 현

지 공직자들을 만나며, 증언으로만 접했던 이야기가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은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현지 공권력과 외교·수사 공조의 한계가 얽힌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1년 가까이 보도를 이어가는 동

안 대중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졌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묻혀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기폭제가 됐고, 이후 관계당국의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취재는 용기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신 제보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귀중한 증언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가장 취약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탐사보도 부문
전북일보 디지털미디어국
박현우<사진>, 김지원 기자

“발로 뛰며 지역을 바꾸는 지역 신문의 가치 확인”

“이 기획 보고 어르신들이 왜 경로당에 모이시는지 알게 됐어.”

한국신문상 수상 소식에 친한 친구이자 동료 기자가 건넨 이 한마디는 제게 그 어떤 말보다 값진 찬사였습니다. 현상 보도를 넘어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됐다!>는 전북 지역 일간지 최초로 디지털미디어국을 신설한 후 내놓은 첫 장기 기획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후배 기자와 ‘우리 지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자 머리를 싸맸

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고,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화정마을에서 3개월 간 어르신들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데이터에만 의존했던 지역 소멸 보도에서 벗어나 마을의 숨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보도가

되자 마을·회사 안팎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화투만 치던 어르신들의 일상에 문화가 스며들었고, 사람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옛 전북도지사 관사인 ‘하얀양옥집’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보도는 지

역 내 다른 농촌 마을까지 퍼지면서 선한 영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발로 뛰며 지역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언론이 가진 힘이라는 것ですよ.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 화정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독자 여러분과 한국신문협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방상기
경향신문사
공무국
기술관리팀 부장



곽지영
국민일보사
종교국
종교기획부 차장대우



장세풍
내일신문사
편집국
기획특집팀 기자



윤성식
뉴스1
마케팅국
부국장



김준호
대한경제신문사
경영기획실
기획부 차장



송재용
동아일보사
경영지원국 PF관리팀
총정로안전관리파트 차장



김경훈
매일경제신문사
공무국 운전1부
부국장대우



진용훈
머니투데이
편집국
제작부 차장



채민석
문화일보사
AD커뮤니케이션국
AD비즈니스팀 부장



전용배
브릿지경제신문사
광고국
국장



김종태
서울경제신문사
총무국 IT지원부
부국장대우



나경은
서울신문사
마케팅본부
ESG위원회 차장



서광태
세계일보사
독자서비스국
국장



인동민
스포츠서울
콘텐츠제작부
사원



안홍식
스포츠조선
경제산업본부
광고사업팀 부국장



방용원
아시아경제신문사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차장



김철민
아주경제신문사
디지털전략실
디지털개발팀 과장



차지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
미디어전략팀 차장



장효선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
차장



장대일
전자신문사
영업마케팅국
회원사업팀 팀장



이용필
조선일보사
총무국 자산팀
차장대우

**제70회 신문의 날
'신문협회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신문협회 회원사 우수사원 54명

신문협회는 제70회 신문의 날(4월 7일)을 맞아 2026년 '신문협회상' 수상자 54명을 선정했다. 신문협회상은 매년 각 회원사에서 추천한 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상식은 4월 7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한용수
중앙일보사
모바일서비스총괄 IT서비스
본부 백엔드개발팀 팀장



김지수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박지훈
한겨레신문사
경영관리본부 통합관리
센터 관리2팀 팀장



문혜정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 주니어
생글생글팀 부장대우



최고은
한국일보사
경영지원실
인사팀 차장



김소희
(주)헤럴드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부장



김형규
강원도민일보사
경영실
총무국 국장



김세진
강원일보사
출판기획본부 디자인
편집부 부장대우



정자연
경기일보사
편집국
문화체육부 부장



정춘화
경남신문사
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이보화
경남일보사
출판기획국
디자인팀 과장



신동선
경북도민일보사
편집국
취재부 부장



김락현
경북매일신문사
대구본부
본부장



박영호
경북일보사
대구본부
광고국 국장



이애정
경상일보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부국장



배종식
경인일보사
마케팅본부 광고사업부
디자인영상팀 차장



임동석
광주일보사
기획관리국
팀장



김준영
국제신문사
인쇄사업국
운전부 과장



최준호
대구일보사
광고부
차장



권기도
대전일보사
미래전략실
전산운영팀 차장



임상준
매일신문사
편집국 사회2부
취재본부장



김정현
부산일보사
문화콘텐츠국
문화사업팀 차장



신수철
영남일보사
광고사업국
문화사업부 부국장



강태아
울산매일신문사
뉴스룸
뉴스콘텐츠부 부국장



김원진
인천일보사
편집국
경제부 차장



황성조
전라일보사
편집국
정치부 부장



강지영
전북도민일보사
편집국
편집부 차장



정윤성
전북일보사
디지털미디어국
영상제작부 부장



양진경
제주일보사
광고국 디자인부
차장대우



원영미
중도일보사
편집국
편집부 부장



강연경
중부매일신문사
독자서비스부
부국장대우



엄득호
중부일보사
편집국
국장



선지원
충청투데이
경영지원국
비서실대리

“AI 네이티브 미디어로 국가 번영 선도할 것”

매일경제 창간 60주년 기념식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창간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은 기념식에서 “AI 네이티브 코리아”의 앞길은 밝을 것이다. 60년 전 창간호의 다짐대로, 매일경제는 대한민국의 60년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

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패권은 기술을 발명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확산시킨 나라의 몫이었다”며 “AI 역시 발명보다 확산을 잘하는 나라만이 번영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매일경제부터 AI 네이티브 미디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02건, 광고 26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3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3월 11일 제1,006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02건과 광고 26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 <표>. 심의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위 홈페이지(www.i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구분		건수
일간신문·통신	기사	기각 102
		주의 0
	광고	주의 26
		경고 0
온라인신문	기사	주의 265
		경고 0
	광고	주의 86
		경고 0

인사

경기일보 새 발행인에 이순국 사장



경기일보는 지난 3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 발행인에 이순국 <사진> 사장을 선임했다.

학력 △경희대학교 상학과 졸업
약력 △(주)대림제약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성실장학회 이사장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경향신문 새 발행인에 박종성 전논설위원



경향신문은 지난 3월 30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 발행인에 박종성 <사진>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선임했다.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사 졸업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약력 △경향신문 사회부·경제부·산업부 기자·산업부장·경제에디터·미디어전략실장·논설위원·사회경제연구원장

한겨레 새 발행인에 박찬수 대기자



한겨레는 지난 3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 발행인에 박찬수 <사진> 대기자를 선임했다.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약력 △한겨레 워싱턴특파원·정치부장·편집국장·논설실장·대기자

4면에서 계속

이 보도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납치·취업 사기·스캠 범죄의 실태를 현지 취재를 통해 집요하게 추적하며, 한국인이 범죄 조직의 인권 침해와 위협에 노출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단발성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구조적 문제와 외교·치안 대응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장기간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에서 기획·탐사 보도의 본령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기획·탐사보도 지역회원사 부

문에서는 전북일보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됐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기자가 직접 농촌 마을에서 청년 이장으로 활동하며 주민들과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단순한 통계나 정책 담론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 예술인과 협업 및 전시로 까지 확장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이 주민과 가장 가까

운 자리에서 공동체의 삶을 기록하고 공론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기획 보도로 평가됩니다.

이번 한국신문상 심사를 통해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많은 언론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공적 역할이 더욱 절실해진 지금, 이번 수상작들이 우리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 이사 선임·윤리위원 위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는 지난 3월 19일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진오 강원일보 발행

인, 한인섭 중부매일 발행인을 각각 감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리위는 또 이날 김병직 문화일보 발행인, 손동영 서울경제 발행인, 박일근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김

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 장진복 서울신문 차장을 2026-2027년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알고리즘이 대세로 변한 지금에도 세상을 읽어내는 신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걸러낸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는 방법, 바로 신문입니다.

